



FKMTU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



Contents

1 | 정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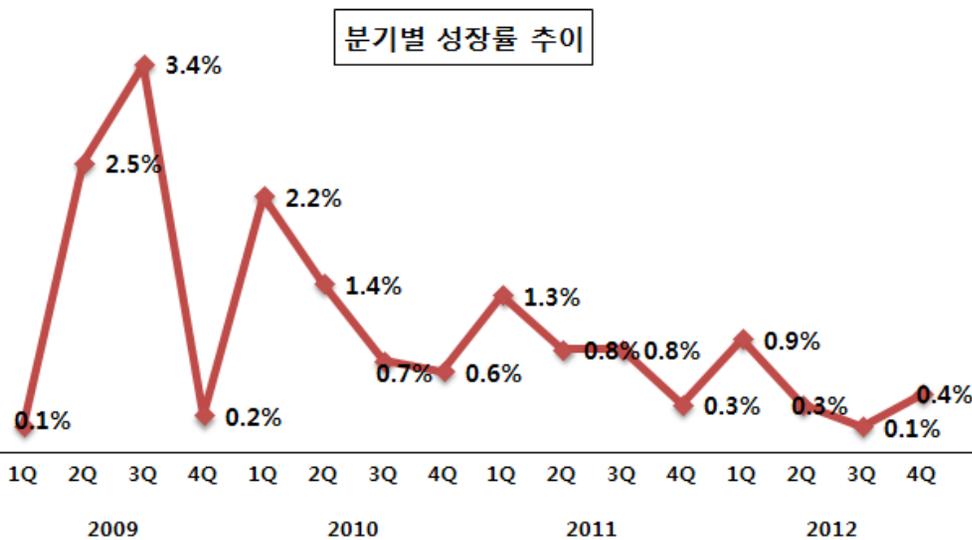
2 | 투쟁방향

경제 환경 및 전망

❖ 2012년 경제성장률 → 2% 턱걸이



3분기 경제성장률이 42개월 만에 가장 낮은 0.1% 기록, 7분기 연속 0%대 성장률 지속
 가계부채와 불황,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45개월 만에 하락 → 향후 내수 부진 지속 우려



- 잠재성장률의 절반수준으로 하락
→ 3.6%(2011년), 2%(2012년)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 가계빚 1,000조 시대 임박 (922조원 '122Q)
- 환율 하락 → 수출 경쟁력 약화
→ '12년 12월 중순이후 원달러 환율 1080원 붕괴

2013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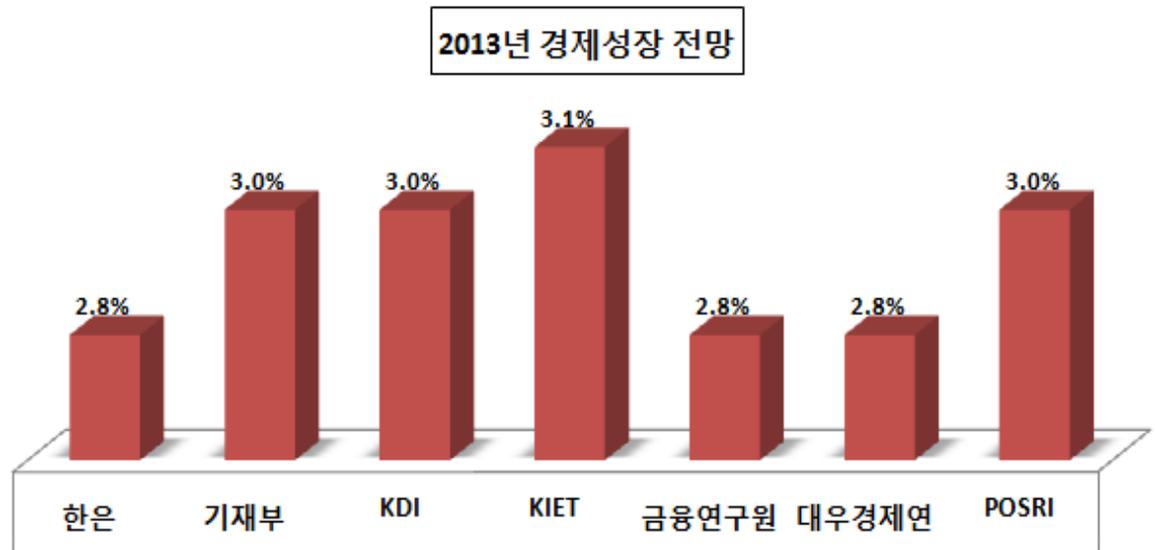
- ❖ **2013 경제성장률은 3% 內 기록할 것**: 2.8%(한국은행), 3%(기재부) But, 보장 불가
- ❖ 유럽, 미국의 경기침체, 일본의 환율조정으로 인하여 수출 빨간등
- ❖ 경제침체 국면이 길고 경기회복기에도 회복속도가 더더 완만한 'L'자형 경기 양상 전망 (국회예산 정책처)
- ❖ IT, 가전, 자동차 등 주력산업 난항 예고

외부변수

-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위험
- 유럽 재정위기 악화
- 중국의 성장률 저하, 엔화 약세

내부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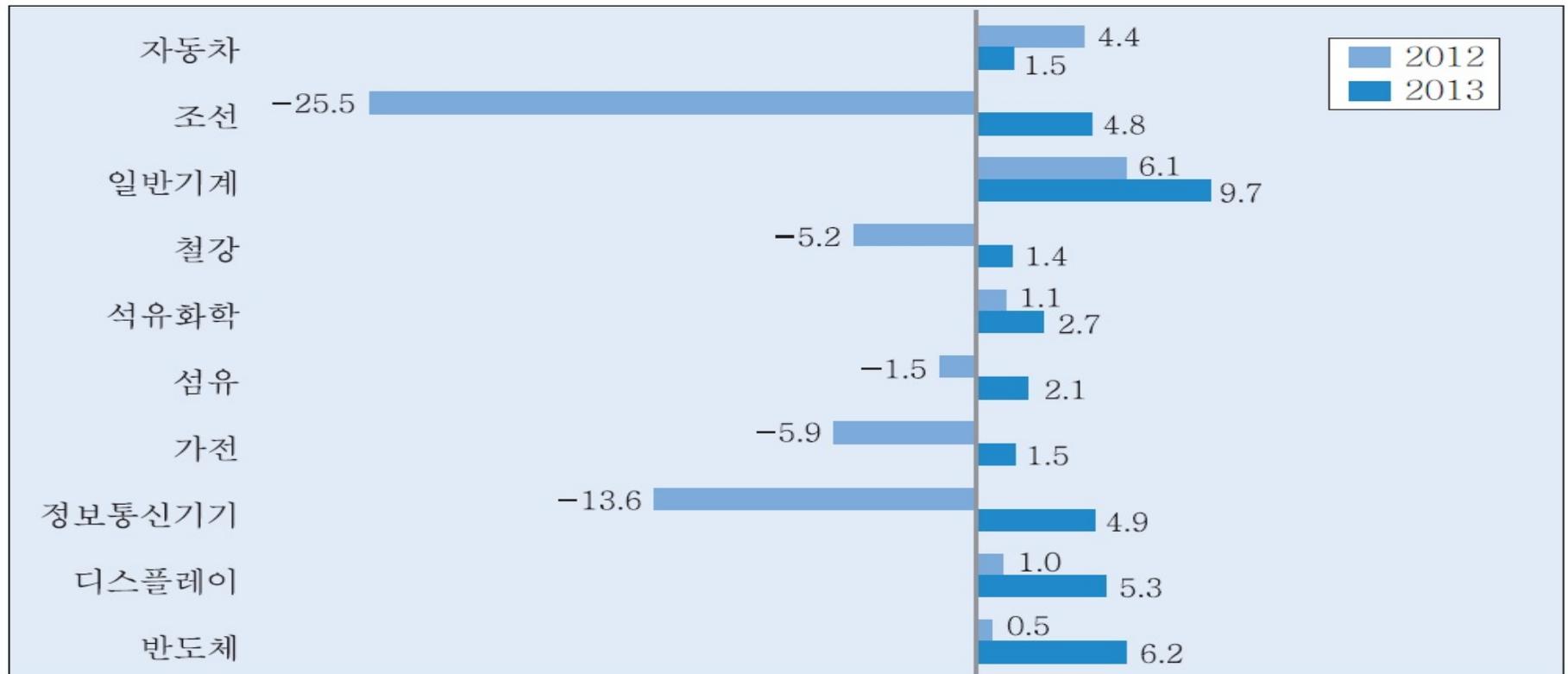
- 가계부채, 부동산 버블 등



2013 금속산업 경제전망(수출)

2013년 산업별 수출증가율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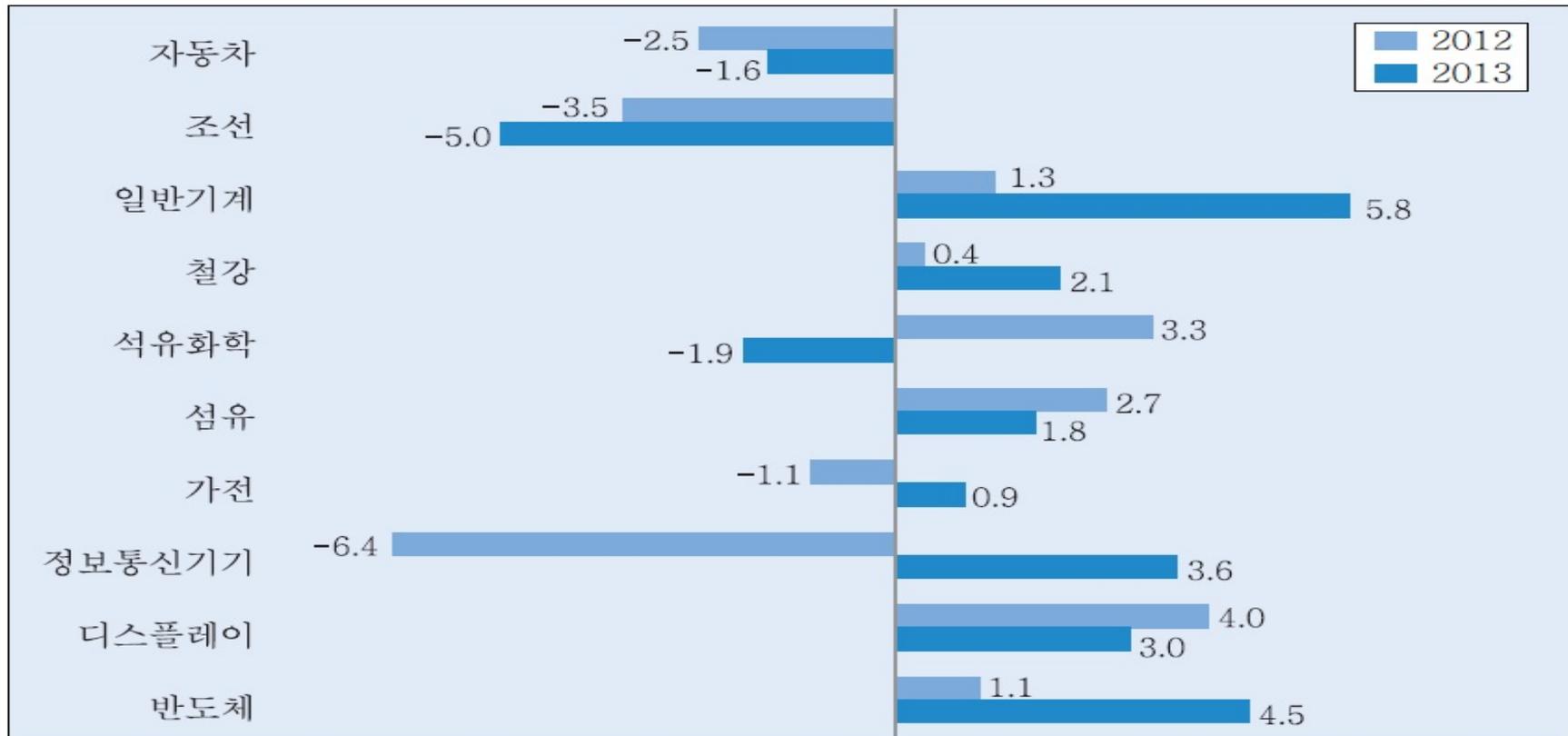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2013 금속산업 경제전망(생산)

2013년 산업별 생산증가율 전망

단위 : %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2013_정치전망

국정과제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새정치=정치개혁)”

현재,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로서 당면 공통 중심 아젠다



2/25 새정부 출범



박정부 성격

과감한 변신(당 칼라, 정책아젠다, MB 차별성 등),
진보적인 정책공약(경제민주화, 복지, 민생 등)

VS

권위주의(협의·공론화 과정 생략, 정보유출 차단 등),
성장제일주의 재현(경제부총리 부활, 안보위기, 경제위기에 따른 복지 지연·포기론)

= 가능성 공존하여 충돌 가능성 내재

2013_새정부의 노동 국정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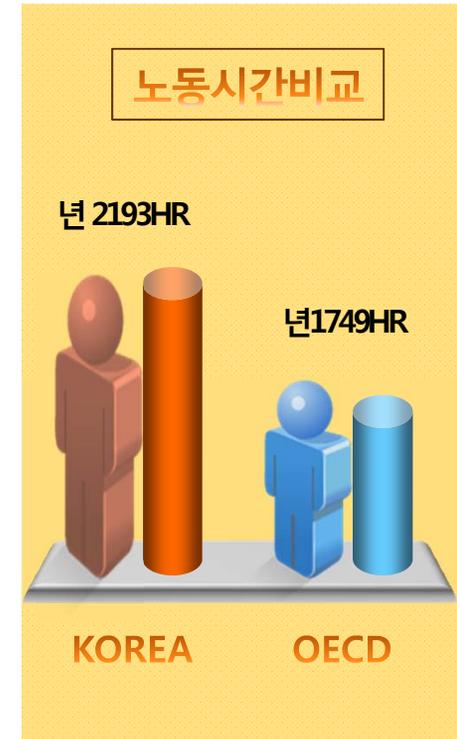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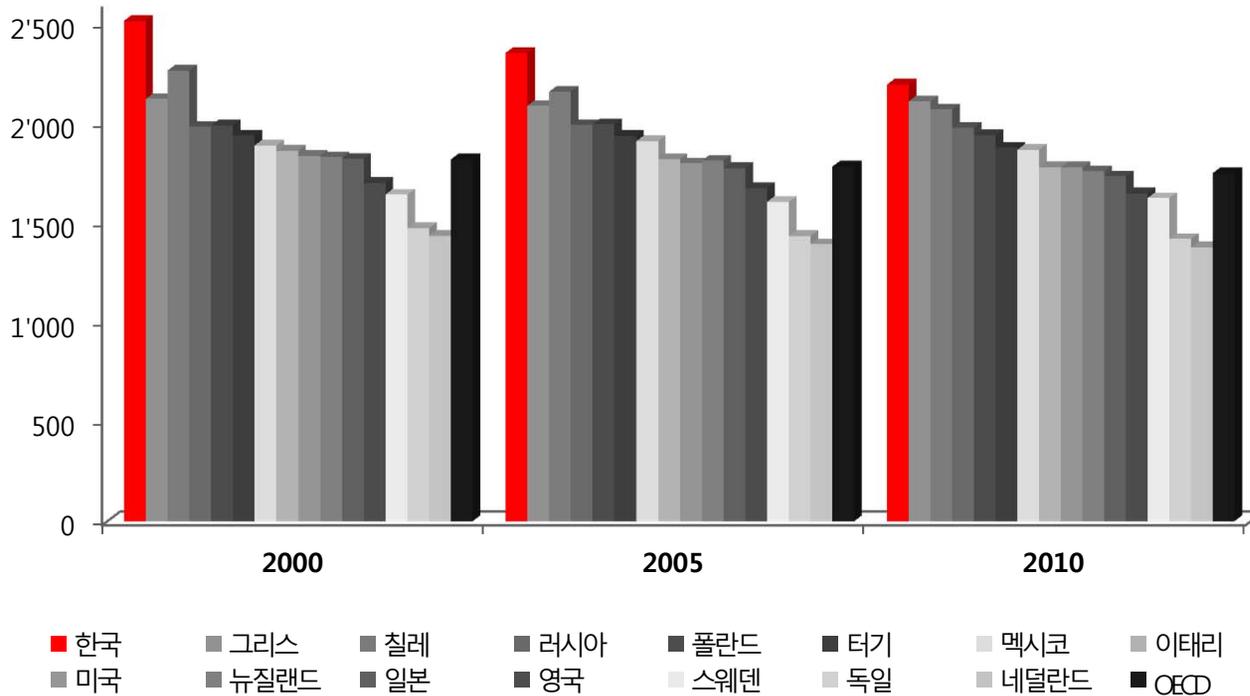
대선 노동정책공약	
노동 시장	<p>행복한 일자리 (늘지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리기 : 신성장동력(창조경제), 노동시간단축, 청년 창업 및 해외취업 확대, 경찰·소방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 지키기 : 정년60세 확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 올리기 : 공공부문 상시지속적업무의 정규직 고용(~2015년),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특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련 등
노사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공정한 중재자 역할 ○ 노사관계 쟁점(노동기본권 강화, 타임오프&복수노조,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노사정위원회대타협 해결 ○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노사정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강화

2013_새정부의 노동 국정과제

인수위원회 노동관련 국정과제	
노동 시장	<p>○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62)</p> <p>▶ △공공부문 상시지속적업무의 정규직 고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두루누리사업 확대+특고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 확대방안 마련,추진, △최저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 및 중장기 목표치 설정 등</p>
	<p>○ 장시간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63)</p> <p>▶ △근기법 개정(휴일근로 연장근로포함 및 연차륙 병행, 특례업종 조정,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중소기업 교대제 개편 패키지 지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활성화 및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청년신규채용시 지원, △단계적 정년연장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 연계한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중장년층 재지원사업</p>
	<p>○ 경기변동대비 고용안정노력 및 지원 강화(64)</p> <p>▶ △해고회피노력(업무재조정·무급휴직 등) 인정 사유 명문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재고용 우선권, △고용재난지역 선정·지원</p>
	<p>○ 청년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8): 해외진출, 창직 활성화, 경찰·소방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p>
	<p>○ 고용영향평가제 강화(9): 국민일자리행복회의 구성, 고용노동통계 등 인프라 강화 등</p>
노사 관계	<p>○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108)</p> <p>▶ △노사정위원회 개편, 사회적대타협 추진 △법·질서 준수, 노사자율 해결 기조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p>

노동시간

OECD 주요국과의 연간 노동시간 비교



2000년 평균 노동시간은 한국과 OECD회원국간에 697시간의 차이가 났으나 2010년에는 444시간으로 감소함.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OECD 최장의 노동시간 국가로서 OECD회원국 국민보다도 연간 11.1주, 월 2.6개월을 더 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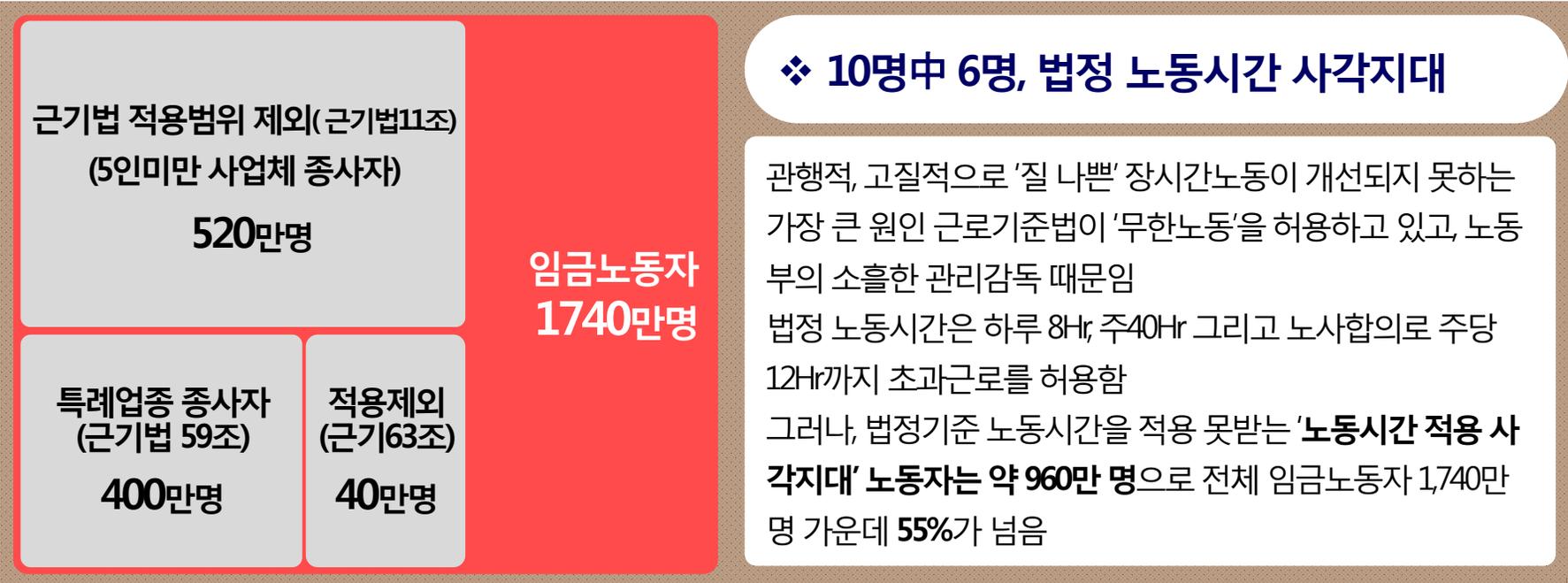
6개 산업의 장시간 노동비교

	자동차	조선	철강	은행	병원	운수/감단직
장시간 노동 수준	장시간 노동 대표 업종, 월 68~79시간 초과근로	장시간노동 대표 업종, A회사 월69~83시간 초과근로	중소하청기업 월45시간 초과근로, 대기업 4조교대제	은폐된 광범위한 장시간 업종, 월63시간 초과근로	장시간 노동은 아니지만 잦은 야근 불가피	업종별 장시간 노동
초과근로수당 비중	월급의 403% 연봉의 226%	월급의 25~30%, 연봉의 15%내외	장시간노동고비중, 정확한 통계부재	12시간 한도 내 초과근로수당		업종에 따라 다름
산업기술특성	생산설비/시설 최대한 가동	생산설비/시설의 최대한 가동	생산설비/시설의 최대한 가동		24시간 간호서비스 필요	2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필요
장시간 노동 형태와 구조	2조2교대제 속 상시화된 평일연장/휴일특근 사내하청의 장시간 노동	상시화된 평일연장/휴일특근 사내하청 장시간 노동	3조3교대/4조3교대/4조2교대제 교대제개편 보다 현대화된 교대제	상시화된 평일연장근로/ 아웃소싱/기간제/무기계약직 활용	불규칙 3교대제(번표제도), 일정한 야간노동	버스2조2교대제, 복격일제, 택시2조2교대/1인1차제/임금지급시간 임의 단축
기업전략 (인사, 노동시간)	최소인력으로 노동시간유연성 확보, 상당수사내하청 노동자 사용	최소인력으로 노동시간유연성확보, 정규직보다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사용	교대제 개편, 혁신, 학습,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동시진행	구조조정후 최소인력 유지/점포당 인원 감소/업무량 증가 경쟁 강화	높은 이직률/ 낮은 수준 인력유지	택시, 감시단속직은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
초과근로수당 지급	생산직, 초과근로시간대로 지급	생산직 법대로 지급/사무직월13시간고정연장근로	초과근로시간대로 지급	포괄임금제로 일부만 지급	인수인계시간 무급	택시와 감시단속직은 초과근로수당의 일부만 지급

장시간 노동의 원인



장시간 노동의 배후에는 법제도적 요인이 큼.
 광범위한 법정 노동시간의 사각지대, 과도한 초과근로 및 휴일특근 의존
 과 이를 방조하는 정부의 근로감독 및 행정해석,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방만한 허용, 2교대 위주의 근무체제 등이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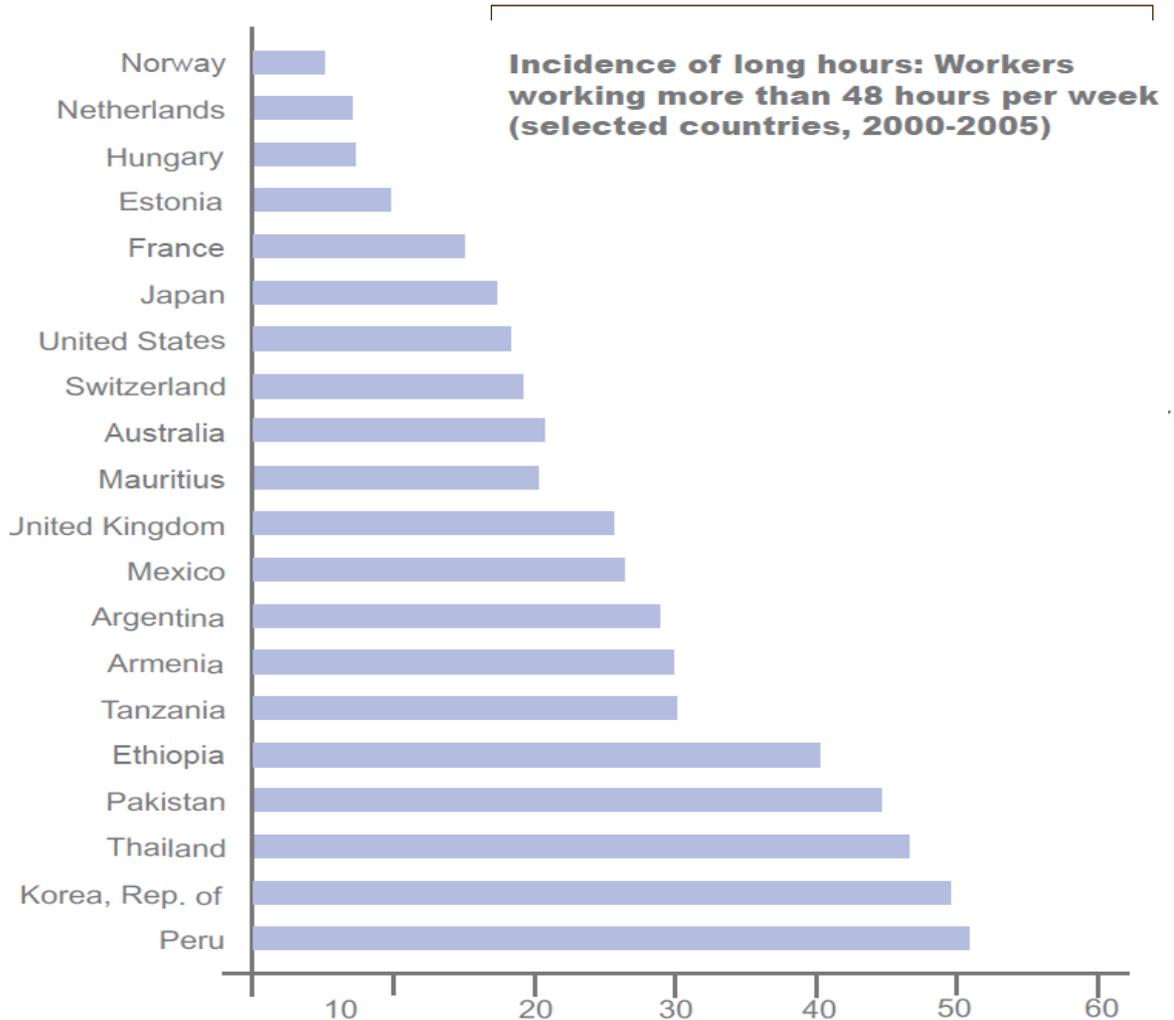
장시간 노동 현황 및 개선방향

탈법적 장시간노동 만연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
으로 제한
∴ 현행법상 주당 최장노동시
간은 52시간임

2011년 현재, 주 52시간 초과
한 탈법적 장시간 노동에 시
달리는 노동자는 380만명으
로 5명 중 1명 꼴임.

유럽연합은 연장근로를 포함
해서 주48시간을 최장 노동시
간 한도로 정함.



- ❖ 2010년 현재 연간 노동시간 한국 2,193시간, OECD 평균 1,773시간
- ❖ 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 단축하려면 연간 노동시간을 400시간 줄여야 함.
- ❖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정책수단) 제시 필요.

처음처럼, 바위처럼

단결과 연대

2013년 투쟁방향

우리의 투쟁방향

□ 실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과도한 행정해석 폐지
- 실노동시간 주당 52시간으로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
- 고정급 중심의 월급제 시행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

우리의 투쟁방향

□ 교대제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전환 시, 재정 지원 확대
- 기업의 설비보완 및 증설, 신규설비 확충 시, 재정, 세제지원 확대
- 재벌의 부품사 지원과 사회적 책무 강화

우리의 투쟁방향

□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경제민주화

- 원청의 일방적 단가 인하 해소
- 원하청간 납품 단가의 원가▪물가 연동제 실시
- 집단조정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재벌 내부거래 규제 및 원하청간 이익공유제 도입

Thank You